



제478차 큐레이터와의 대화(2016년 1월 27일)

고대인의 삶의 흔적과 염원이 담긴 토우와 상형토기

박경도 | 107호 가야실 | 19:00~19:30

상형토기와 토우는 흙으로 사람, 동물, 특정한 물건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형토기는 동물이나 어떤 특정한 물건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의례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죽은 사람의 안식이나 영혼의 인도 등 어떤 상징적 기원을 표현한 것이다. 동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말모양토기와 새모양토기, 특정 사물을 본떠 만든 배모양토기나 수레모양토기, 집모양토기 등이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혼이 다른 세상에서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이 있었는데, 상형토기는 이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롭게 날아 이동할 수 있는 새나 당시의 장거리 이동수단이었던 말이나 배, 수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승천하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집이나 창고와 같은 건물을 본떠 만든 것도 있는데, 이는 죽은 사람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에서는 토기 뚜껑 등에 사람이나 다양한 동물, 물건 등을 본떠 만든 토우土偶를 붙여 놓은 것이 확인된다. 형태가 단순하면서도 무엇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특징을 잘 잡아서 묘사하였다. 토우는 신라 사람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바람 등 정신세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인간의 모습은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가야금을 타는 여인, 성행위를 하는 남녀, 출산하는 여인, 죽음을 애도하는 여인, 사냥하는 사람, 말 타는 사람 등 삶의 다양한 순간과 모습을 보여준다.

동물은 소, 말, 개, 토끼, 두더지, 개미핥기와 오리 및 각종 새, 개구리와 뱀, 거북이, 불가사리, 물고기, 용 등이 확인된다. 거북이는 불로장생을, 물고기와 토끼는 풍요와 다산多産을, 개는 안전과 사냥에서의 보조역할을, 원앙은 다른 새와 함께 영혼의 전달자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게와 가재, 불가사리는 허물을 벗거나 몸통이 분리되어도 쉽게 재생하는 동물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 주술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말탄사람모양 주자[騎馬人物形注子], 금령총 출토, 국보 제91호

금관총 출토 ‘이사지왕’명 대도의 보존처리와 제작기법 조사

권윤미 | 108호 신라실 | 19:00~19:30

1921년 경주의 한 주택의 수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금관총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신라시대 고분 최초로 금관이 발견되어 금관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사지왕’명 대도는 이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존처리 진행 중 칼집장식 표면의 푸른 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尔’, ‘십十’, ‘이사지왕尔斯智王’ 총 6글자의 명문이 발견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명문 중 특히 ‘이사지왕’은 신라의 무덤에서 최초로 확인된 ‘왕’에 관한 명문으로서, 금관총의 주인뿐 아니라 고대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2013년에 보존처리를 마치고 공개된 이 칼로 인해, 2015년에는 국립박물관 주관으로 경주 금관총의 재발굴이 추진되었고, ‘이사지왕도’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집끝장식이 또 다시 출토되었다.

보존처리 전의 이 칼은 금속과 나무부분이 모두 부식되고 손상되어, 어떤 부분은 손만 대어도 바스러질 정도로 약한 상태였다. 유물에 손상을 주는 부식물과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약품처리를 통해 약해진 재질을 안정하게 만들고 강화하였으며, 떨어진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아 안전하게 접합하여 보존처리를 마쳤다.

보존처리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실에서 ‘이사지왕’명 대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자들 역시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새로운 내용들은 고대 신라의 무기제작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이사지왕’명 대도의 보존처리 전 사진



그림 2. ‘이사지왕’명 대도의 보존처리 후 사진



그림3. 명문
‘尔斯智王’

삼국시대 반가사유상

-그 국적문제에 대하여-

이정은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의 제작국 연구의 어려움은 남아 있는 반가사유상의 대부분이 휴대가 가능한 작은 불상이어서 이동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달리 크고 무거워 사찰에서 예배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소장품으로 있다가 해방 후 국립박물관에 입수되었고, 또 국보 제83호는 이왕가 소속의 덕수궁미술관 소장품에서 1969년 초 국립박물관과 통합되면서 소장되었기 때문에 이 상들 조차도 출처가 불분명하여, 연대적으로나 양식적으로 기준작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반가사유상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상에 대한 국제 문제는 오랫동안 학계의 연구 주제였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삼국시대 반가사유상들이 제작시기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며 만든 방법도 다른 상들을 함께 두고 비교하여 각 국의 특징을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적이 확실한 몇 점의 반가사유상을 살펴보고 각 국 상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반가사유상은 석조상, 마애상, 금동상, 소조상 등 파손된 예를 합하여 약 30여 구가 알려져 있다. 이중 대표적인 고구려의 상으로는 평양



그림 1.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



그림 2.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평천리에서 출토되었다는 금동반가사유상이 있다. 이 상은 오른손이 파손되었고 상의 표면이 상했으나 고구려 반가사유상의 기준작이 되고 있다. 대체로 국보 제 83호 반가상과 같은 계보에 속한다.

백제의 반가사유상 중에는 유명한 충청남도 서산의 마애삼존불상 중에 본존불상의 왼쪽 협시보살상이 반가의 자세로 표현되어 있는데 손부분이 일부 파손되었다. 원래 협시보살은 좌우가 같은 형식인 것이 보통인데 이 서산의 마애삼존불의 경우 오른쪽 협시는 두 손에 보주를 마주 받은 봉보주捧寶珠의 자세여서 도상의 의미로 보면 관음 보살상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 삼존상의 본존을 석가모니불로 보고 반가사유상을 미래의 불인 미륵보살로 보며 백제시대에 유행한 봉보주보살상은 관음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서산의 마애삼존불은 당시 백제의 불교사회에서 가장 널리 신봉되었던 석가, 관음, 미륵상이 표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부여 부소산 출토 반가석상과 부여 현북리 출토 반가석상이 알려져 있다. 이 두 석상은 허리 부분 이상이 파손되어있어 백제 반가사유상의 자세한 표현을 살피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김제 출토 금동반가사유상은 특이하게도 두 나한이 협시하고 있는 판불형태이다.

신라의 반가사유형 보살상은 고구려나 백제에 남아 있는 예보다 더 많으며 크기도 대형이다. 경주 송화산 기슭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석조 반가사유상은 1.6m이며 경상북도 봉화 북지리에서 출토된 석조 반가사유상은 하반부만도 1.6m가 되는 대형상이다. 특히 이 반가상의 조각 표현은 국보 제83호 삼산관반가사유보살과



그림 3. 국보 제118호 반가사유상, 평양 평천리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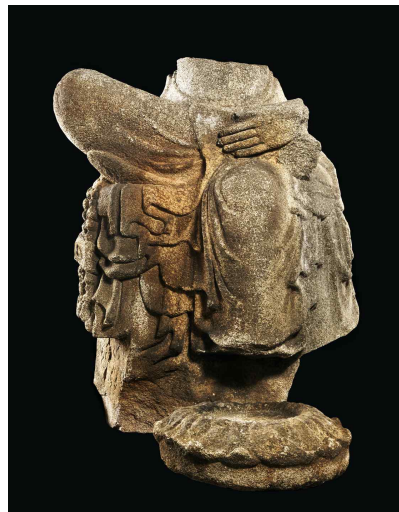


그림 4. 보물 제997호 반가사유상, 봉화군 북지리 출토



거의 같은 형식으로 허리 밑으로 접혀진 옷주름 표현이나 내려진 왼쪽 다리의 연화족좌足座의 모습이 동일한 계통의 도상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보 제 83호와 같은 계통의 상으로 전 황룡사지 출토 반가사유상 두상이 있어 신라지역에서 이와 같은 계통의 반가사유상의 제작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반가사유상 중 주목되는 것은 경주 근교 단석산의 서남쪽 정상 가까운 곳에 있는 신선사의 마애불상군 중의 반가상이다. 깎아지른 높은 암벽이 좁은 석굴처럼 세워졌고 입구 가까이에 8m크기의 불입상이 표현되어 있다. 좀 더 안쪽 암벽 위에는 반가좌의 보살상이 오른쪽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서너 구의 불보살상이 두 손을 내밀고 공경의 자세로 반가사유상을 향해 서 있다. 반가사유상의 도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위에서는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의 제작국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적이 확실한 현존하는 각 국 반가상을 소개하였으나, 주요 반가사유상들의 국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완의 과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옛 신라 영토였던 경남 양산에서 출토된 이 반가사유상은 발견 초기에는 신라 불상으로 알려졌으나, 완벽한 조형 감각과 사실적인 세부 표현 등 미술사적인 양식 분석을 통하여 백제작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반가사유상은 아니지만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은 옛 신라의 영토인 경남 의령에서 출토되었으나, 명문에 의해 고구려 작품으로 판명되는 등 출토지가 국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반가사유상 국적문제 연구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반가사유상의 제작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출토지보다는 양식적 고찰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테마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3)

장성욱 | 테마전시실 | 19:00~19:30

강진 사당리는 고려 왕실에서 사용한 청자를 생산한 가마터로 유명한 곳이다. 이 가마터는 1964년 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에서 청자기와가 발견되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977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무려 10만여 점이 넘는 청자들과 일부 백자를 수습할 수 있었다. 이 청자들은 이미 알려진 명품만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고려청자의 모습을 보다 풍부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있다.

사당리에서는 고려청자 전성기 초반의 순청자 명품뿐 아니라, 상감청자를 비롯하여 퇴화·철화·철채·철채상감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청자도 출토되었다. 특히 상감청자는 국화, 당초, 모란, 연꽃, 보상화, 황촉규, 운학, 물가풍경, 용, 물고기 등의 무늬가 잔잔하고 회화적인 상감에서부터 역상감逆象嵌, 조선분청사기로 이어지는 말기의 상감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청자 상감 용무늬 접시, 사당리 가마터 출토

한편, 사당리에서는 음각·압인·상감·철화 기법의 다양한 명문銘文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상감 간지명干支銘이다. 간지명 상감청자는 고려 말기 14세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당리가 이 시기에도 청자 생산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간지명은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 ‘계유癸酉’, ‘갑술甲戌’, ‘임오壬午’, ‘정해丁亥’, ‘을미乙未’ 등 모두 8종류가 확인된다.

사당리에서는 흑자黑磁와 백자도 생산되었다. 청자를 주로 했던 것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고려백자는 조선백자와는 달리 표면이 무른 연질軟質에 아이보리색을 띠는데, 청자와 동일한 그릇의 형태와 무늬가 백자로 표현되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비록 소량이지만 좋은 품질의 흑자 장고杖鼓와 백자 나한상羅漢像은 사당리 도자의 폭넓고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